

성체 및 발생중인 흰쥐 콩팥에서 표피성장인자 -양성세포의 출현시기와 분포양상

점주영, 이승현, 차정호, 한기환, 임선우, 임정미, 정진웅, 김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표피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EGF)는 5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티드로서 생쥐 턱밀샘에서 처음 추출된 후, EGF가 콩팥에서도 생산 분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 기능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잘 모르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EGF의 기능을 밝히는 실험의 일환으로 발생중인 흰쥐 콩팥에서 EGF-양성세포의 출현 시기와 위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Sprague-Dawley계의 흰쥐를 사용하여, 임신 16일, 18일 및 20일, 그리고 출생 후 1일, 4일, 7일, 14일, 21일 및 성체(3개월)로부터 콩팥을 절취하여 EGF에 대한 광학 및 전자현미경적 면역세포화학법을 시행하였다.

1. 성체 흰쥐 콩팥에서의 EGF-양성세포의 분포

- (1) EGF 면역반응성은 원위세관 중 치밀반를 제외한 굵은오름부분과 원위곱슬세관에 잘 국한되어 나타났고, 다른 요세관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다.
- (2) 굵은오름부분에서 EGF 면역반응성은 수질부위보다는 피질부위에서 강하였고, 피질부위에서는 EGF 음성세포와 양성세포가 뚜렷이 구분되었다.
- (3) 전자현미경상 굵은오름부분 및 원위곱슬세관 세포에서 EGF 면역반응성은 자유면세포막(apical plasma membrane), 소포(vesicle) 및 골지복합체(Golgi complex)에서 나타났으며, EGF-양성 소포는 주로 핵 상부 세포질에 분포되어 있었고, 자유면세포막에 부착되어 있는 소포도 흔히 관찰되었다. 굵은오름부분에서 EGF-양성세포는 미세융모가 발달되어있지 않은 세포(smooth surfaced cell)였으며, EGF-음성세포는 짧은 미세융모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는 세포(rough surfaced cell)였다.

2. 발생중인 흰쥐콩팥에서 EGF-양성세포의 출현시기와 분포

- (1) 임신 16-20일 및 출생 후 1일군 콩팥에서는 분화중인 요세관을 포함하여

콩팥 어느 부위에서도 EGF 면역반응성은 관찰할 수 없었다.

(2) 출생 후 3일군에서 EGF 면역반응성은 처음 출현하였다. EGF 면역반응성은 분화중인 굵은오름부분에 나타나되, 수질결콩팥단위의 굽은오름부분중 피질과 수질경계부위에서만 EGF-양성세포가 나타났고, 바깥피질과 수질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다. 전자현미경상 EGF-양성세포는 미세융모가 발달되어있지 않은 세포(smooth surfaced cell)였다.

(3) 출생 후 7일군에서는 EGF-양성세포는 3일군과 거의 비슷하여 주로 수질결콩팥단위의 굽은오름부분에서 관찰되나 양성세포의 수가 많아졌고, 면역반응성도 증가하였다. 또한 수질결콩팥단위의 원위곱슬세관에서도 EGF-양성세포가 소수 출현하였다.

(4) 출생 후 14일군부터 수질결콩팥단위 뿐 아니라 피질콩팥단위의 굽은오름부분과 원위곱슬세관에서도 EGF-양성세포가 관찰되기 시작하여 속피질뿐아니라 바깥피질에서도 EGF-양성세포가 관찰되었다. 또한 바깥수질에 위치한 수질굵은오름부분의 상피세포에서도 EGF 면역반응성이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5) 출생 후 21일군에서는 피질에 위치한 원위곱슬세관과 피질굵은오름부분 뿐 아니라, 바깥수질에 위치한 수질굵은오름부분에서도 강한 양성반응을 띠어 성체에서와 같이 바깥수질과 속수질의 경계가 분명하여졌다.

이상과 같이 흰쥐 콩팥에서 EGF가 원위세관 상피세포에서 생산되어 속공간으로 분비하며, 발생과정에서 EGF-양성세포가 세포분열이 활발한 태생 및 출생직 후에는 나타나지 않고 출생 후 3일부터 출현하여 출생 후 21일부터 성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콩팥에서 생산 분비되는 EGF는 세포의 증식보다는 원위세관 이후의 요로 상피세포의 분화와 성장에 관여하리라 생각한다.